



금융감독원

보 도 자 료

금융은 **통통**하게 소비자는 **행복**하게

보도	2023.12.27.(수) 조간	배포	2023.12.26.(화)		
담당부서	감독총괄국 검사총괄팀	책임자	팀 장	김익남	(02-3145-8290)
		담당자	선 임	김광형	(02-3145-8012)

부담은 낮추고!! 효율은 올리고!!
검사의 시작, 사전요구자료가 가벼워집니다.

I 추진 배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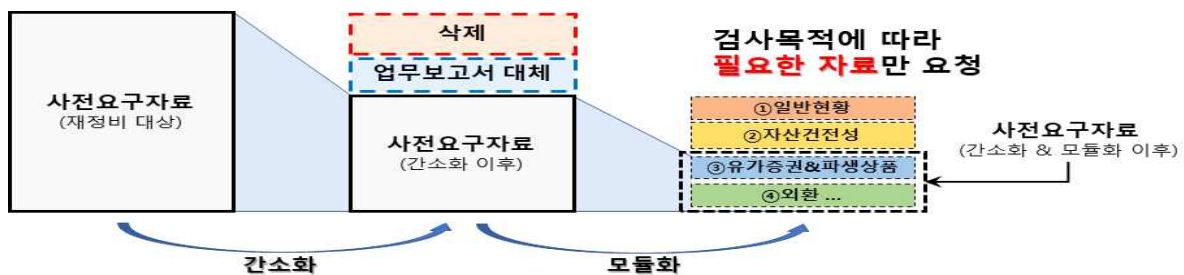
- 금융감독원이 현재 금융회사 검사시 요구하는 검사 사전요구자료*는 양이 많아 금융회사의 수검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계속 되어 왔습니다.

* 금융감독원 홈페이지(www.fss.or.kr) → 업무자료 → 검사·제재 → 검사 사전요구자료 서식에서 확인 가능

- 이에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부담을 완화하고, 검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전요구자료를 재정비하였습니다.

II 개선 내용

【개요】



1 요구자료 중 활용도가 낮거나 대체 가능한 항목을 삭제하여 간소화

- 검사환경 변화 등으로 필요성이 감소하거나 금융회사가 주기적으로 제출하는 업무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는 사전요구자료 항목을 **대폭 간소화**하였습니다.

- 27개 업종, 46개 사전요구자료 서식의 요구항목 총 1,988개 중 **427개*** 항목(21.5%)을 삭제 하였습니다.

* 활용도 저하로 인한 삭제 326개(16.4%), 업무보고서 대체에 따른 삭제 101개(5.1%)

2 검사주제에 따라 사전요구자료 서식을 유형별로 세분화

- 모든 검사에서 동일하게 포괄적으로 요구하던 자료를 **검사주제별로 세분화***하여 **필요한 자료만 요구**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였습니다.

* (예시) 상호금융(농·수·신협)에 대한 사전요구자료 서식은 1개에서 5개(일반현황, 자산건전성 분류, 여신취급 및 사후관리, 동일인 대출한도 등 각종 법규한도 준수, 내부통제)로 **세분화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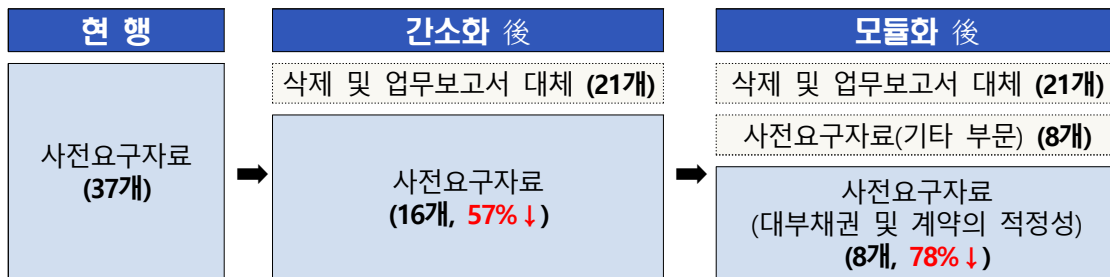
- 모듈화를 통해 ①**사전요구자료 간소화 효과** 뿐만 아니라, ②**중요 부문에 대한 검사 역량 집중을 통해 검사 효율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.**

III 기대 효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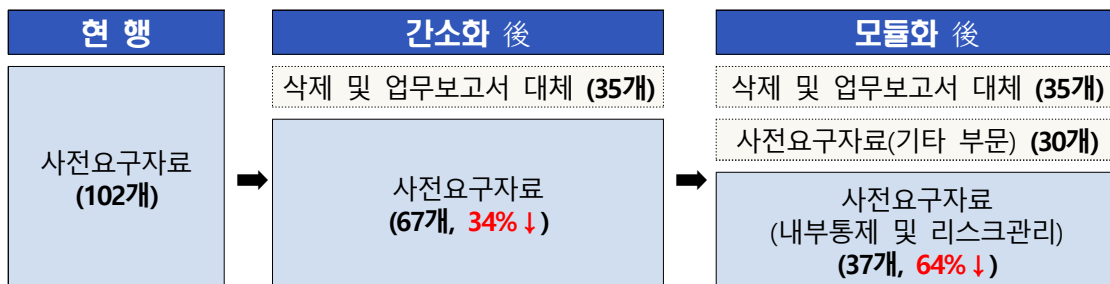
- 이번 개편으로 금융회사가 제출해야 할 검사 사전요구자료는 **최대 78%까지 감소**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【참고】 간소화·모듈화에 따른 요구자료 감축효과(예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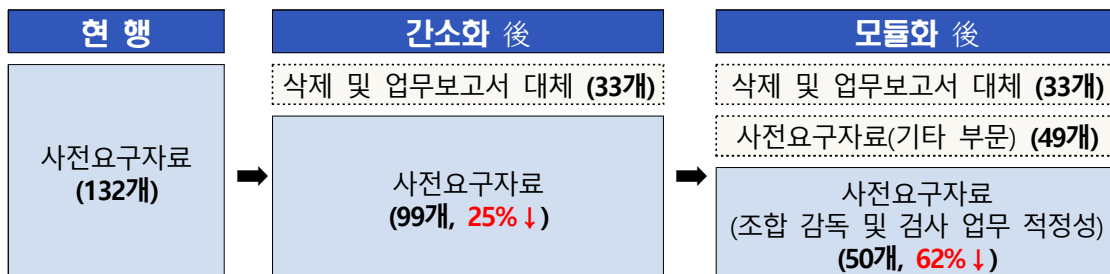
1. 금전대부업자(대부채권 및 계약의 적정성 검사) : 37개 → 8개 (78% ↓)



2. 카드사(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검사) : 102개 → 37개 (64% ↓)



3. 상호금융 중앙회(조합 감독 및 검사 업무 적정성 검사) : 132개 → 50개 (62% ↓)



IV 향후 계획

□ 개편된 사전요구자료 서식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등록*하고,

* 은행 권역은 현재 추진 중인 경영실태평가 개편 작업 완료 후 '24.2월 중 홈페이지 등록 예정

- 금융회사 의견을 반영하며 재정비 실효성을 주기적(매년 1회)으로 점검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.